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문화사업의 역할정체성 확립과 가족친화적 사회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비교 연구

-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과의 비교 -

박 지 영(금천구건강가정지원센터 문화팀장)

전 종 미 (금천구건강가정지원센터 사무국장/성신여대 박사수료)

장 진 경(숙명여자대학교 가족자원경영학과 교수/금천구건강가정지원센터장)

본 연구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의 기관별 가족문화사업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문화사업 역할 정체성 확립과 가족친화적 문화 조성의 방향성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건강가정기본법 제 28조에 근거한 가정생활문화발전 및 가족친화문화조성사업을 기초로 하여 각 기관별 현황과 강점·약점을 탐색하였다. 연구방법은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95개 종합사회복지관 중 권역별 비례할당표집으로 25개 기관을 선별하고 인터넷에 게재된 가족복지프로그램과 문헌자료를 수집·조사하여 얻은 결과를 비교분석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 대상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종합사회복지관의 문화사업은 구조적 결손을 겪고 있는 가족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아동방과 후 프로그램, 장애인 프로그램, 아동기능교육프로그램, 노인 프로그램 등 특정 연령층이나 대상별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는 반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문화사업은 가족관계의 증진과 가족공동체 문화의 조성을 기반에 두고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가족문화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둘째, 프로그램의 성격을 살펴보면 종합사회복지관의 문화사업은 가족 내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구성원의 보호와 부양의 목적이 우선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반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문화사업은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한 가족여가문화의 도구로써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있었다. 셋째,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기간을 살펴보면 가족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범시민 운동 및 캠페인 활동을 동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기적인 프로그램은 가족관계에 있어 사회전반의 긍정적 인식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강점이 있었으며, 종합사회복지관의 사업은 단기적인 사업을 우선으로 하여 구조적 결손을 가진 가족의 기능적 결손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었다.

본 연구결과,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의 사업은 프로그램 참여 대상과 동기, 서비스 실시 기간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특히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프로그램 대상을 가족을 단위로 한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가족관계를 증진시키고 더 나아가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내 가족친화적인 사회문화 확립을 도모하고 있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문화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가족문화프로그램과는 다른 독특한 역할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를 더욱 강화시켜 가족친화적인 가치를 강조할 수 있는 중앙정부 차원의 가족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서울 자치구뿐만 아니라 국가 전반에 걸쳐 가족 친화적 사회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